

녹용을 내 애완동물에게 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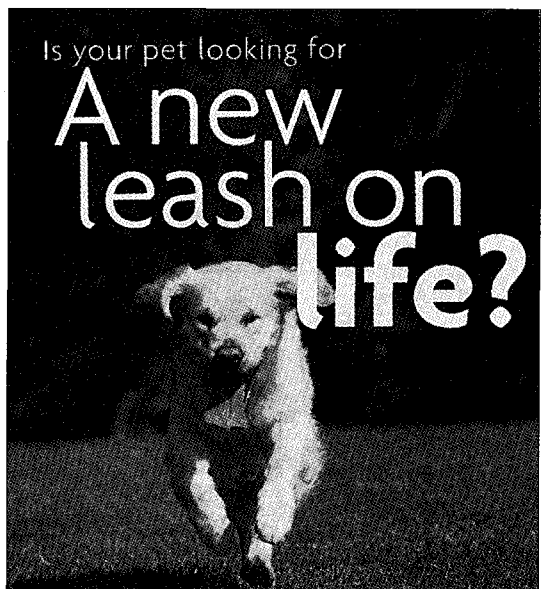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의 애완동물은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별한 관계에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녹용에 대한 과학적 효능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게까지 녹용성분이 첨가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환경에서 그들이 녹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현지인의 글을 해석 게재한다.

저자 : Clinton Balok, DVM

오늘날 애완동물들은 없어서는 안될 가족구성원의 한 부분이 됐다. 애완동물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삶에 있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

래 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인 애완동물의 건강과 장수를 절실히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 백만여 애완동물들은 고질적인 관절염과 그밖에 노화에 따른 질병들을 겪고 있다. 사람에게 쓰이는 약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약들은 종종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동물의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질적인 면이나 대안으로써 처리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구인 갤럽에 의하면 뉴멕시코에서 녹용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된 바 없다고 조사됐다. 녹용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200여마리의 실험동물에게 임상실험을 한 결과 거의 80%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즉 녹용은 연골조직과 연골유동체의 재생 효과가 있으며 또한 면역계통에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동물에게 처리했을 때 식욕과 외관상 만족할만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

◆ 왜 녹용은 시판되는 어떤 단일의 영양학적인 천연 생산물보다 더 많은 효능들을 보입니까?

녹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의 조합은 상승효과를 제공한다. 그 결과 많은 영양들의 결합효과는 단일의 영양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이익)를 창출한다.

◆ 동물들에게 녹용이 어떤 상승효과들이 있습니까?

- 동물의 외피와 털이 개선된다.
- 신장효과를 개선된다.
- 생식능력을 높여준다.
- 상처에 대한 치료효과를 촉진시켜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완동물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모두가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매일 자신들의 애완동물에게 녹용을 추가하여 먹이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최근 어린 동물의 사양에 있어서 둔부의 발육부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녹용의 효능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둔부의 발육부진은 유전되어지는 병으로 둔부와 관절에 관한 질병이다. 관절이 일찍 나빠지기 시작하면 심한 고통을 받게되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버린다.

독일 셰퍼드와 램브리도종의 개를 기르는 것은 작은 개의 사양보다 더욱더 힘들다고 한다.

녹용은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동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녹용이 강아지의 증진과 근육의 성장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한 운동을 하였을 때 근육의 회복과 통증을 악화시키는데도 녹용이 유용하다. 말에 있어서도 컨디션, 발굽과 갈기, 그리고 상처의 치료에도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녹용은 만병통치약이나 절대적인 약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하면서 이상적으로 삶의 질을 진보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애완동물의 영양보충 프로그램의 사료로 그리고 천연식품으로서 해마



다 다시 재생되는 자원이다. 모든 애완동물과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북미사람 입장에서 쓰여진 글로써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한 미래경제학자는 “차세대 황금알을 낳는 벤처 아이템은 애완동물 테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제미래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까운 미래사회는 독거인(혼자 사는 사람)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애완동물을 찾게 된다.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먼저 최고의 애완동물 상품에 눈길을 줄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측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죽은 애완동물을 살려내기 위해 DNA를 이용한 복제 애완동물을 탄생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애완동물 권리장전’의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동물소유주가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물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애견전문 CD가 출시되어 사람들이 즐겨듣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애완동물은 동물로서의 지위이상의 존재로 이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의 가족이상의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사료에 있어서도 예외일순 없다. 수많은 자본투자와 연구를 통해 애완동물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녹용의 우수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애완동물사료의 한 성분으로까지 첨가되고 있는 것이다. 귀한 녹용을 사람도 아닌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게 먹인다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유망한 사업으로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외국의 경우라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흘러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도로 애완동물 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인삼, 당귀, 황금등 생약추출물이 함유된 사료가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녹용이 함유된 고가의 애완동물사료가 나오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한국양록**

〈권영재 기자〉